

코스닥. . 심사동향을. . . . 파악하라.

2005년부터 VD는 벤처CEO 및 벤처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몇가지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 이 코너는 코스닥 등록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알아보는 코너로 연중 게재해 코스닥 등록에 대한 벤처기업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예

비심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동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등록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비심사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상황에 적합한 등록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록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사동향의 파악은 등록시기 결정이나 전략 수립을 다소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영역은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질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승인율이나 미승인 사유 등을 파악해 회사의 당락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위원회의 최근 심사 추세

심사동향 파악을 위해서 등록 준비 기업의 담당자들은 우선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예비심사제도의 낮은 승인율로 인해 과거 예비심사 청구 경력이 있는 업체들의 재청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등록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도 빈번해졌다.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강화 현상은 승인율의 하락 뿐만 아니라 승인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승인 기업들의 평균 실적은 과거에 비해 최근 월등히 높아졌고, 이는 비단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청구 기업 전체에 해당되어 청구 전 우수한 실적 확보는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심사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규정상의 요건 충족만을 가지고 등록을 준비중이라면 그 가능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회사와 유사한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의 동향 파악은 중요하다.

미승인 사유 파악의 중요성

승인 기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미승인된 기업들의 미승인 사유 파악 역시 중요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사업성 및 수익성 검증 미흡이 미승인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등록기업들의 분식이나 횡령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재무자료의 신뢰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비중있게 심사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기업공개 이전에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제도를 실시하여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기업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동 사유로 인한 미승인 사례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질적 심사시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강조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나 경영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도는 증가되었다.

그 외 미승인 사유로는 관계회사 관련 위험, 신규사업 불확실성, 재무안정성 미흡, 매출채권 관련 위험 등이 있으며, 담당자는 각 사유별로 회사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봄으로써 회사의 미비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다.

개별기업의 미승인 사유는 기밀사항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반기말이나 연말에 코스닥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사유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발행되는 코스닥시장백서를 통해서도 각 미승인 사유별 사례까지 자세히 발표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들을 참조하면 된다.

코스닥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질적요건에 대해서는 다소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이라면 제반 요건 충족과 더불어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